

현대부르조아《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반동성

채 미 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부르조아어용학자들이 들고나오는 경제리론의 기만성과 그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꿰뚫어보아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262페이지)

현대부르조아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도 경제위기를 없애고 날을 따라 침예화되는 사회경제적모순들을 《완화》시킬수 있으며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룩할수 있는 듯이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여러가지 기만적이며 반동적인 꾀변들을 조작류포시키고있다.

그러한 꾀변의 하나가 1980년대이후부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이 저들의 경제정책의 리론적기초로 삼은 현대부르조아《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이다.

현대부르조아《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오스트리아의 반동적인 경제학자인 하이에크에 의하여 제창된 부르조아경제리론의 하나이다.

하이에크는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순수 리론경제학을 주장하면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부르조아경제학자들을 규합하여 현대부르조아《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을 내놓았다.

현대부르조아《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생물학적진화론을 사회현상, 구체적으로는 경제현상에 적용하여 사회주의를 헐뜯고 자본주의를 찬양하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간섭의 결과로 더욱 침예화된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위기와 사회경제적모순을 《해결》할수 있는듯이 주장하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은폐된 방법으로 변호하는 현대부르조아경제리론의 하나이다.

현대부르조아《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인식의 불완전성》과 《진화와 준칙》에 관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라는데 있다.

하이에크는 《인식의 불완전성》가운데서 《지적능력의 불완전성》을 중시하면서 그것을 《인간의 사고능력의 불완전성》과 《지식의 불완전성》으로 나누고 《인간의 사고능력의 불완전성》이란 인간이 사물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하다는것이며 《지식의 불완전성》이란 인간이 추상적인 일반적사실들에 대한 리론과 구체적인 특정한 사실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다는것이라고 하였다. 더우기 그는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정보의 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이 모두 가지고있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사회건설에서 성공하자면 두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사회건설에 필요한 인간의 사고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사회에서 있게 되는 구체적현상과 사실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간이 모두 알고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인식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이 두가지 조건이 모두 달성될수 없기때문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건설한 사회는 불완전하며 결과가 락관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여기로부터 그는 사회주의와 《복지국가》 등 20세기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많은 제도가 이러한 잘못된 사회건설의 산물이며 이 제도들은 인간사회를 개선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권력의 람용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축소하고 시장경제의 효률을 떨구어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인간은 리성과 지식이 모두 불완전하기때문에 일정한 준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준칙은 여러가지 정황과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반응하도록 하는 일정한 행동양식과 그것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관습으로서 여러 세대를 통하여 진화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화는 인간의 의도적인 설계에 의한것이 아니고 환경적응 과정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점차 발전하게 된다고 하면서 비단 준칙만이 아니라 언어, 규칙과 제도 등 모든것이 진화를 통하여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

하이에크는 생물학적진화론을 사회현상에 적용하기 위하여 《인간인식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면서 사회발전을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발전으로가 아니라 자연계와 같이 진화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진화과정에 이룩된것은 그 존재나 미래가 담보되지만 《인식이 불완전》한 인간이 의도적으로 세운것은 그 미래가 략관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는 《자유경쟁》에 기초한 자본주의경제제도는 진화과정에 이룩된것으로서 《영원》하지만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세운것으로서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인간인식의 불완전성》과 《진화와 준칙》에 대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개조활동이 폭넓고 깊이있게 전개되고있는데 겹을 먹고 인간의 리성을 무시하고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외곡하며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고유한 생존경쟁의 《의의》를 과장하고 그것을 사회현상에까지 확장하여 착취계급의 정치적억압과 경제적착취,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리화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궤변이다.

현대부르조아《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진화된 《자유의 법》과 인조된 《정부의 법》에 기초하여 《시장질서의 기능》을 합리화하는데 있다.

하이에크는 사회나 법을 하나의 《질서》로 보는 견해로부터 《인조된 질서》와 《자생적인 질서》라는 개념을 조작해내어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해나섰다.

그는 특정한 인간 또는 집단이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설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질서를 《인조된 질서》라고 하였으며 진화를 통하여 저절로 형성된 질서를 《자생적인 질서》라고 하였다. 그는 사회는 모든 현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인간이 설계한 《인조된 질서》와 진화의 결과로 형성된 《자생적인 질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본주의사회와 그에 고유한 시장경제는 룰리와 언어 등과 같이 《자생적인 질서》에 속하므로 안정하고 영원하지만 사회주의사회와 그에 고유한 계획경제는 《인조된 질서》에 속하므로 불안정하고 영원할수 없다고 하였다.

법도 하나의 질서로 본 하이에크는 법을 《자생적인 질서》에 속하는 법으로서의 《자유의 법》과 《인조된 질서》에 속하는 법으로서의 《제정된 법》 혹은 《정부의 법》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자유의 법》이 지배적인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라는 리상이 《활짝》 꽃피고 개인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여 사회에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법》은 진화에 의하여 형성된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도적인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 현대《민주국가》의 《자유》를 침해하고있다고 하였다.

진화된 《자유의 법》과 인조된 《정부의 법》에 기초하여 《시장질서의 기능》을 합리화하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고 사회발전의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가로막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부르조아《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경제에 대

한 국가의 《진화론적간섭》을 주장한 《정부개혁》에 대한 반동적인 견해라는데 있다.

우선 《진화론적신자유주의》자들은 부르쥬아국가의 재정지출을 줄일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예산총액제한제도》를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지난 시기 국가의 잘못된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증대되는데 대하여 《비판》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경향을 고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총액을 국회에서 미리 결정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가계나 기업은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방법을 따르기때문에 지출에 한계가 주어지지만 국가재정은 지출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에 수입을 맞추는 방법을 따르기때문에 지출팽창에 제한이 없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재정지출총액을 먼저 정하고 그 한도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산총액제한제도》에 대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기만적이며 반동적인것이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국가예산의 적자는 필연적이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의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은 군사비지출을 엄청난 규모로 증대시킨다. 이것은 예산지출의 장성을 예산수입으로 보장할수 없게 함으로써 예산적자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므로 예산적자를 반대하면서 예산균형을 제창한 《진화론적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군사비의 방대한 지출이 예산적자에 미치는 작용을 가리우고 마치도 예산균형이 보장될수 있는듯 한 환상을 조성하려는 기만적이고 반동적인것이다.

또한 《진화론적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제한된 간섭》을 주장하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시장가격기구에 의한 생산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민간기업이 생산할수 있는 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의 독점적생산을 피하고 민간에게 맡겨야 제품이나 봉사의 품질저하와 자원의 낭비를 막을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그는 민영화의 확대로 인한 《국영기업》의 생산을 줄이는 방법과 생산은 민간에게 맡기고 국가는 자금만 지원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우기 사회공동의 목적으로 리용되는 재부나 봉사도 가능하면 국가가 직접 생산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자금만 지원하고 생산하는 것은 민간기업간의 경쟁에 맡길것을 제안하였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진화론적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기만적이며 반동적인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국영기업》이란 사실상 자본주의적인 사적소유의 변종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며 민간기업이란 본질에 있어서 독점기업체들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더 많은 독점적고물리운을 추구하는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실현시켜주는 행위로밖에 될수 없는것이다.

또한 《진화론적신자유주의》자들은 최소한의 《복지제도》를 유지할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에 대한 《공헌》이나 《업적》에 따라 분배할것을 주장하는 케인즈주의에 기초한 《복지제도》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이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소한의 〈복지제도〉는 치안이나 국방과 같은 안전보장의 하나이며 이러한것이 없으면 불만과 폭력이 발생할것이다.》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복지제도》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그는 가격규제, 임금규제, 고용규제, 임대료규제, 특정산업의 지원이나 규제와 같이 시장질서를 허물어버리는 《복지제도》는 잘못된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거나 혹은 직업을 얻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이하로 생활이 떨어지지 않게 생활자

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최소한의 《복지제도》에 대한 《진화론적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는 경제에 대한 국가적간섭의 《제한》이라는 간판밑에 독점자본가들에게 보다 유리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줄것을 주장하는 반동적인것이다. 그것은 《복지제도》를 위한 지출을 비롯한 국가예산 지출(군사비지출 제외)의 감소를 시장의 작용에 대한 국가의 《부정적간섭》의 재정적기초를 없애는것으로 묘사하였기때문이며 이러한 설교가 최소한의 《복지제도》를 통하여 기아와 빈궁에서 허덕이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이를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꾀변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또한 《진화론적신자유주의》자들은 독점을 새로운 방법으로 옹호하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보다 교활하고 은폐된 방법으로 변호하였다.

하이에크는 독점기업은 항상 그와 경쟁하려는 잠재적인 경쟁기업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독점시장에서도 독점적고물리운을 추구하기 힘들며 독점적기술이나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는 독점기업이 독점가격과 같이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파는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독점을 옹호하여나섰다. 그는 나쁜것은 독점이 아니라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거래》이며 많은 사람들이 독점을 반대하는것은 독점기업이 특권을 행사한다는 그릇된 생각이라고 하면서 독점기업이 많은 독점적고물리운을 얻으려고 하는것은 사적소유제도에서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대기업은 나쁘고 중소기업은 좋다는 관념은 잘못된 편견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쁜것은 높은 효율성이나 독점적생산요소때문에 발생하는 독점 그자체가 아니라 다른 경쟁기업이 경쟁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독점적지위를 리용하여 독점기업들이 진행하는 《경쟁방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독점자체를 금지할것이 아니라 경쟁제한과 독점들사이의 련합을 금지하여야 하며 따라서 《독점변호사제도》의 도입과 독점기업간의 모든 련합을 무효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점에 대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독점적고물리운을 추구하는 독점자본가들을 변호하고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더욱더 강화된 조건에서 《자유시장경제질서》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결합시키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반동적인 경제리론이다.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운에 대한 끝없는 탐욕은 그들로 하여금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경제적지배권을 틀어쥐기 위하여 시장에서 상품을 자본주의적생산비에 평균리운을 합한 생산가격보다도 높은 독점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리속을 불리우게 하고있다.

하이에크의 주장은 독점가격형성의 본질을 은폐할뿐아니라 리운에 대한 무제한한 탐욕으로부터 대독점들이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있는 현실을 합리화하는 반동적리론이다.